

『황구연전집』의 자료적 고찰

임 철 호(전주대)

〈목 차〉

- | | |
|----------------------|--------------------------|
| 1. 서론 | 2.3. 작가가 확실하지 않은 작품 |
| 2. 『전집』과 기존 작품의 비교 | 2.4. 구술자와 작가가 확실하지 않은 작품 |
| 2.1. 황구연이 구술하지 않은 작품 | 3. 결론 |
| 2.2. 구술자가 확실하지 않은 작품 | |

1. 서론

본고는 구술자와 작가에 대한 연구 자료로 활용할 때 『황구연전집』¹⁾이 지니는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의 표지에는 ‘민간이야기대왕 황구연전집 김재권 수집 정리’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전집』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작품이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를 김재권이 수집, 정리한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중국 현지는 물론 국내 연구자들까지 이를 근거로 하여 『전집』에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구술자 황구연과 작가 김재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²⁾

- 1) 김재권, 『황구연전집』 ①~⑩, 연변인민출판사, 2007~2008. 이하 『전집』으로 약칭함.
- 2) 『전집』에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 구술자 황구연에 대한 연구들은 최 향의 박사학위논문(『황구연전집 설화 연구 -다중적 의식세계와 미적 지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11, 3면)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최 향 또한 『전집』에 수록된 모든 작품을 황구연이 구술한

조선족설화는 조선족 민간문학 작가가 조선족의 구비설화를 수집, 정리하여 조선어로 간행한 문헌설화이다. 따라서 조선족설화에는 구비설화 전승집단인 조선족의 역사의식과 현실인식, 구술자와 작가의 개인적인 생각과 역량, 그리고 중국의 정책적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 있다.³⁾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족설화는 전승의 현장에만 존재하는 구비설화와는 다른 개념과 범주를 갖는다. 조선족설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조선족의 삶과 역사, 구술자와 작가에 대한 고찰, 그리고 작품이 수집, 정리, 간행된 시기의 정치사회적 상황 등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⁴⁾

김재권은 『전집』의 <머리말>에서 “수록된 이야기에는 박창묵, 황상박 선생이 수집, 정리한 것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 박창묵과 황상박이 수집, 정리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몇 작품의 말미에 박창묵과 황상박이 아닌 다른 작가의 이름을 밝힌 경우가 있다.⁵⁾ 김재권은 박창묵과 황상박 외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수록했으면서도 <머리말>에서는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전집』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이들 외에 다른 작가들에 의해 수집, 정리된 작품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김재권은 작가와는 달리 구술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술자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독자와 연구자들은 당연히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나 작가에 대한 언급에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술자에 대해서도 신뢰성에 대한 의혹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한다. 『전집』에 황구연이 아닌 다른 구술자의 작품이 들어 있다면

것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필자도 초기의 논문(『조선족설화의 변이와 중국의 성격 고찰』, 『영남학』, 제13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496면)에서 『전집』에 수록된 <리성계의 룡뭉> 등을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로 보고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 3) 임철호, 『조선족설화의 형성과 장르적 성격』, 『우리말글』, 제45집, 우리말글학회, 2009, 30-32면.
- 4) 정책적 이데올로기는 출판사와 편집인의 엄격한 지침과 통제를 통해 작품에 반영되었다. 독자에 대하여 존칭을 쓸 것인지, 특정 의성어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등도 지침을 통해 통제하였다. 예를 들면 어느 시기에는 ‘-하였다’로, 어느 시기에는 ‘-하였습니다’로 끝맺게 하였다든가,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따웅 -’으로 표기하게 한 것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 5) 김재권은 <마반산>(07:096: 김명환), <경박호>(07:099: 김용식), <백두폭포>(07:105: 리천득), <축지법을 쓰다>(07:109: 리용득), <툭툭디 쭈이쵸>(07:110: 류일엽) 등의 작품 말미에 황구연은 물론 박창묵과 황상박 등이 아닌 다른 작가의 이름을 명시하였다.

조선족설화의 성격상 자료적 가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고는 『전집』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작품이 과연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를 김재권이 수집, 정리한 것일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전집』에 수록된 것과 같은 작품이 황구연이 아닌 다른 구술자로부터, 김재권이 아닌 다른 작가가 수집, 정리한 작품으로, 『전집』이 아닌 다른 설화집에 수록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⁶⁾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연구자들은 『전집』의 모든 작품을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를 ‘김재권이 수집, 정리한 작품’으로 보고 구술자와 작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족설화는 개인작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구술자와 작가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중국 현지는 물론 국내의 연구에서도 현실화되었다. 최 향은 최근 『전집』에 수록되어 있는 <구새바위>(07:024),⁷⁾ <적지늪>(07:025)에 대한 논의 과정에 이들 작품이 『한:두』에 수록된 <구새바위>, <적지늪>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부터 해당 지역에서 전승되는 이야기를 재구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 하였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거의 동일한 것’이 아니라 내용은 물론 문장까지 완전히 일치하는 동일 작품이다. 최 향은 황구연이 ‘해당 지역에 전승되는 이야기를 재구연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작품이 되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김재권이 한정춘의 작품을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검증되지 않은 『전집』의 작품을 구술자의 의식이나 삶의 정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경우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최 향은 “디아스포라적 삶을 살았던 황구연의 정착의식과 뿌리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두만강전설>(07:022)과 <세 자매강>(07:026)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황구연이 구술한 것도, 김재권이 수집, 정리한 것도 아니다. 최 향은 『한:두』와 『민:③』에 실려 있는 <두만강전설>과 <세 자매강>을 『전집』에 수록된 해당 작품의 ‘이본’이라 했으나 실은 김재권이 구술자와 정리자를 바꾸어 수록한 동일 작품이다.

6) 임철호, 「조선족설화의 전승과 변이」, 『국어문학』47집, 국어문화회, 2009.

7) 이 표기는 ‘『황구연전집』, 7권, 목차 24번 작품’을 의미한다.

8) 최 향, 앞의 논문, 60면.

본고는 조선족설화에서 『전집』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황구연과 김재권의 위상을 폄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전집』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도하는 자료 검증의 한 작업일 뿐이다. 『전집』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황구연이나 김재권과 관련이 없는 작품을 가려내 황구연과 김재권에 대한 연구 자료로서 『전집』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본고의 목적이 보다 완벽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집』에 수록된 개별 작품들을 이보다 먼저 발표된 모든 조선족설화와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족설화의 누적 작품수가 7천여 편이⁹⁾ 넘어 이들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비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필자가 수집한 6천여 편의 작품 가운데 같거나 유사한 제목의 작품을 비교하여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가 아닌 작품과 김재권이 수집, 정리하지 않은 작품의 목록만 작성할 것이다. 김재권이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를 자신이 수집, 정리한 작품이라 한 경우에도 정황상 사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작품들의 목록도 작성할 것이다.

2. 『전집』과 기존 작품의 비교

김재권의 설화집¹⁰⁾ 가운데 『전집』보다 먼저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를 수집, 정리한 것으로는 『김:배』와 『김:파』가 있다. 『김:배』는 김재권 개인이 수집, 정리한 것이고, 『김:파』는 박창목과 공동으로 수집, 정리한 것이다. 『김:배』의 경우 작가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김:파』는 개별 작품의 정보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김:배』는 김재권이 황구연으로부터 수집, 정리하여 간행한 첫 번째 구술자 중심의 설화집이다.¹¹⁾ 『김:배』가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에서 지니는 이러한

9) 조선족설화는 여러 문헌에 중복 수록된 경우가 많다. 이들 작품을 모두 계산한 작품수를 '누적 작품수'라 하였다.

10) 김재권의 개인 설화집으로는 『소년부사』, 『천생배필』, 『천생연분』, 『과경노』, 『효부중』, 『호랑이 옛말 50컬레』, 『피돌이』 등 20여 권이 있다.

11) 조선족설화에서 구술자 중심으로 간행된 설화집으로는 『김덕순고사집』(김덕순 구술, 배영진 수집 정리, 상해문예출판사, 1982), 『천생배필』(황구연 구술, 김재권 수집 정리, 연변인민

성격과 김재권과 황구연의 인간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여기에 수록된 모든 작품은 당연히 황구연이 구술한 이야기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에도 황구연이 아닌 다른 구술자의 이야기(12) 수록되어 있는 점이다. 또한 여기에 수록된 45편의 작품 가운데 13편(13) 『전집』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전집』의 경우 더 심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전집』에 수록되어 있는 947편의 작품을 이보다 먼저 발표되었거나 간행된, 같거나 유사한 제목의 작품과 비교한 결과를 몇 개 유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족설화는 구비설화가 아니라 전문작가에 의해 정리된 문헌설화이기 때문에 문장까지 같은 작품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만약 문장까지 같은 작품이 있었다면 그것은 같은 작가의 동일 작품으로 봐야 한다.

2.1. 황구연이 구술하지 않은 작품

『전집』에는 황구연 x, 즉 황구연이 구술하지 않은 작품이 최소 72편 수록되어 있다. 72편 가운데에는 김재권 x, 즉 김재권이 정리하지 않은 작품도 34편이나 된다. 72편은 『전집』에 수록될 어떤 이유도 없는데 김재권이 황구연의

출판사, 1986), 『팔선녀』(차병걸 구술, 임승환·한광일 수집 정리, 흥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7), 『과경도』(황구연 구술, 김재권·박창목 수집 정리, 민족출판사, 1989) 등의 순으로 간행되었다.

- 12) 『김:배』에 수록된 <환갑잔치의 유래>는 『민:③』에 박병관의 구술 이야기를 김재권이 수집, 정리한 작품으로 되어 있고, <죄는 지은 데로 간다>는 『민:④』에 조금옥의 구술 이야기를 김재권이 수집, 정리한 작품으로 되어 있다. 전자는 『전집』에 수록되어 있으나 후자는 수록되지 않았다. 『민:④』는 박창목·김태갑·김재권 세 작가가 공동으로 수집, 정리한 작품집이다. 김재권 자신이 정리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김재권이 황구연과도 관련이 없는 작품들을 『전집』에 수록했다는 점과 박창목과 공동으로 수집, 정리한 『김:과』에 수록된 작품의 대부분이 『전집』에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없다.
- 13) <박어사와 평양명기 로화>, <천냥에 좌수벼슬을 산 권백정>, <임진사와 그의 머느리>, <삿갓가마>, <보배쌈지>, <황의정승에 대한 이야기>, <김삿갓의 이야기>, <범잡은 로인>, <지혜로운 소년>, <불에 타 죽은 부자>, <리항복에 대한 이야기>, <삼쾌정>, <모친의 열녀정문을 불사르다> 등 13편이다. <박어사와 평양명기 로화>는 『전집』(03:057)의 <로화>와 유사한 내용이나 『김:배』는 평양 기생과 로화와 박문수 이야기이고, 『전집』은 전라도 장성 기생 로화와 로수신에 관한 내용이다. <김삿갓의 이야기>와 『전집』(01:004)의 <김삿갓>도 같은 김병연에 관한 이야기이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리항복에 대한 이야기>는 『전집』(04:039)의 <리항복>과 일화 몇 편을 제외하면 문장까지 같다.

구술 이야기를 자신이 수집 정리한 작품으로 바꾸어 수록한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한 작품의 목록과 먼저 수록된 문헌을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황구연 x, 김재권 x인 작품

『전 집』 권:목차	작 품 명	황 구 연	김 재 권	기 존 수록 문헌					
					07:026	세 자매강	x	x	민:③
					07:043	형제바위	x	x	황:금
					07:044	적압동	x	x	황:금
07:013	구룡바위	x	x	김:조	07:045	절레꽃	x	x	황:금
07:014	사자바위	x	x	황:금	07:046	방아골	x	x	황:금
07:015	재미내골	x	x	황:금	07:047	7자나무	x	x	황:금
07:016	나리밭등	x	x	황:금	07:048	좁쌀꽃	x	x	황:금
07:017	장백약수	x	x	황:금	07:050	도끼봉	x	x	황:금
07:018	토끼골	x	x	황:금	07:051	조양천	x	x	황:금
07:021	팔련성	x	x	한:두	07:091	룡늪	x	x	민:③
07:022	두만강전설	x	x	한:두	07:094	천보산	x	x	김:조
07:023	흑룡바위	x	x	한:두	07:096	마반산	x	x	김:조
07:024	구새바위	x	x	한:해	07:101	복심	x	x	김:조
07:025	적지늪	x	x	한:두	08:023	큰코 다칠라	x	x	민:③
07:029	룡정	x	x	김:조	08:054	천도복숭아	x	x	연:연
07:032	해란강	x	x	김:조	08:071	그 놈도 그 놈	x	x	연:연
07:034	말발굽산	x	x	박:사	09:073	죽은 범 놓고 다시 판정한 소년	x	x	민:③
07:035	모아산	x	x	김:조	10:202	황통쟁이 부자의 버릇을 때다	x	x	림:팔
07:037	선바위	x	x	황:금	10:203	이 문둥아!	x	x	민:③
07:040	민들레꽃	x	x	김:삼					
07:041	비런지	x	x	북:중					
07:042	금망아지	x	x	황:금					

먼저 수록된 설화집 가운데 『김:조』, 『북:중』, 『민:③』, 『연:연』은 여러 작가의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고, 『황:금』, 『한:두』, 『한:해』, 『림:팔』, 『박:사』, 『김:삼』은 작가의 개인 작품집이다. 이들 작품집에는 개별 작품에 대한 정보, 즉 구술자와 작가, 그리고 수집 상황 등을 밝혀놓았는데, 모두 황구연은 물론 김

재권과도 관련이 없는 작품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내용은 물론 문장까지 일치하고 있어 구술자와 작가를 바꾸어 수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말발굽산>을 비롯한 일부 작품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같은 작품으로 보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인용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사철푸른 소나무 우거진 모아산고개를 넘어 과일나무 줄지어선 산기슭을 따라 서쪽으로 20리 가량 가면 해란강물 굽이치는 세전이별을 굽어보며 우뚝 솟은 산이 있으니 그 이름을 말발굽산이라 부른다.

그 생김생김이 신통히도 말발굽과도 같아 말발굽산이라 부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도 사람들이 이 산을 말발굽산이라 부르는데는 그럴만한 이야기가 있다.(『박:사』, 20면)

통정시에 자리잡은 연변대학 농학원뒤에 우뚝 솟아 만무과원 해란강을 굽어 보는 산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산을 말발굽산이라 부른다.

그 생김생김이 신통히도 말발굽과도 같아 말발굽산이라 부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도 사람들이 이 산을 말발굽산이라 부르는데는 그럴만한 이야기가 있다.(『전집』, 07:034, 255면)

첫 문장은 다르지만 나머지 문장은 글자 하나까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우연일 수 없기 때문에 김재권이 『박:사』에 수록된 <말발굽산>의 문장 일부를 바꾸어 『전집』에 수록한 것으로 봐야 한다. <마반산>, <천도복숭아>, <그 놈도 그 놈>, <죽은 범 놓고 다시 판정한 소년> 등의 작품에도 이러한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말발굽산>의 경우와 같이 앞 부분의 일부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문장이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작품을 변이시킨 것으로 단정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2) 김재권 ○인 작품

03:020	리성계의 룡꿈	x	○	김:효	06:005	효부종	x	○	김:효
03:025	리순신의 일화	x	○	김:효	06:006	머느리에게 절을 한 리진사	x	○	김:효

04:027	리관찰	×	○	김:효	06:008	시누이를 시집보내다	×	○	김:효
05:001	여덟 장수와 앓은뱅이	×	○	김:효	06:009	초부와 임금	×	○	김:효
05:002	장승을 길들인 군수	×	○	김:효	06:010	천냥을 주고 로인을 사다	×	○	김:효
05:003	백정의 아들	×	○	김:효	06:029	환갑잔치의 유래	×	○	민:㉓
05:006	시골녀인한테 매를 맞은 덕에 과거에 급제했다	×	○	김:효	07:027	하수복바가지	×	○	김:효
05:007	중놈의 버릇을 뎌 과부	×	○	김:효	08:011	암행어사	×	○	김:소
05:008	김서방과 9형제산	×	○	김:효	08:012	지혜롭게 강도무리를 잡은 소년	×	○	김:소
05:009	콩 한알이 여덟근	×	○	김:효	08:013	피많은 돌이	×	○	선:하
05:010	주인량반과 하인	×	○	김:효	08:014	정성	×	○	김:소
05:011	선비와 시골로인	×	○	김:효	08:015	산 범의 뺨을 때린 시골소년	×	○	김:소
05:012	병조판서가 된 시골선비	×	○	김:효	08:016	쌍둥이의 지혜	×	○	김:소
05:014	귀신을 다스린 사람	×	○	김:효	08:017	지주를 골탕먹인 꿀머슴	×	○	김:소
06:001	왜 사위가 오면 닭을 잡는가	×	○	김:효	08:018	우둔둥이와 령민둥이	×	○	김:소
06:002	혈연	×	○	김:효	08:020	사주팔자	×	○	김:소
06:003	도끼산장	×	○	김:효	09:045	호랑이와 고슴도치	×	○	김:효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는 아니지만 김재권이 수집, 정리한 작품들을 분류한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한 작품의 대부분은 모두 김재권의 개인 작품집 『김:효』와 『김:소』에 수록되어 있다. 김재권은 자신의 설화집에서 개별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혀 놓았는데, 위의 작품들은 모두 황구연이 구술한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효』에 수록된 35편의 작품 가운데 황구연이 구술한 이야기는 7편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1편을 구술자를 바꾸어 『전집』에 수록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황구연이 구술한 <한 배사공의 제사>는 『전집』에 수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재권은 황구연이 구술하지 않은 작품, 자신이 수집, 정리하지 않은 작품을 구술자와 작가를 바꾸어가면서까지 수록했으면 서도 정작 황구연이 구술한 작품 가운데 일부는 수록하지 않았다. <리춘풍

전>은 김연옥, 리세걸, 황구연 등 세 사람이 구술한 것인데도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로 수록하였다.

<환갑잔치의 유래>는 김재권이 『민:③』에 수록할 때 박병권의 구술 이야기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 『김:배』에 수록하면서 구술자를 명시하지 않아 황구연으로 바뀌게 되었고, 『전집』에 수록되면서 자연스럽게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김재권의 작품집 곳곳에 나타난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적지늬>은 한정춘이 최기환으로부터 수집, 정리하여 『한:두』에 수록했던 작품이다. 그런데 김재권은 백민성이란 자신의 필명으로 간행한 『김:두』에 작품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 전제하여 자신의 작품으로 변이시켰다가 『전집』(07:025)에 수록하였다. 이 과정에 구술자는 물론 작가도 바뀌게 되는 일종의 작품 세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2. 구술자가 확실하지 않은 작품

구술자 △인, 즉 구술자가 황구연인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작품을 분류한 것이다. 김재권이 『전집』에 수록했기 때문에 황구연이 구술한 작품으로 봐야 하겠지만, 앞서 수록된 설화집에서 구술자를 밝히지 않아 황구연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작품들이다. 이 유형에도 김재권의 작품이 아닌 것도 있고, 김재권이 수집, 정리한 것이 확실한 작품도 있다.

(1) 김재권 ×의 작품

07:012	장수발자국	△	×	김:조	07:092	동불사	△	×	김:조
07:028	룡정의 유래	△	×	김:조	07:093	로투구	△	×	김:조
07:030	룡정의 전설	△	×	김:조	07:095	뽕나무와 가래나무 전설	△	×	김:조
07:033	대포산	△	×	김:항		07:097	마반산의 유래	△	×
07:038	용천굴	△	×	갈:백	07:098	의란의 유래	△	×	김:조
07:039	부채바위와 꽃사슴	△	×	김:조	07:099	경박호	△	×	연:연
					07:102	런꽃늬	△	×	김:조
07:049	표적바위	△	×	김:항	07:103	부엉이산과 쥐봉	△	×	김:조
07:052	배감투	△	×	김:항	07:105	백두폭포	△	×	리:백
07:053	울가미전투	△	×	김:항					

07:054	호미도 신식무기	△	×	김:항	07:109	축지법을 쓰다	△	×	김:항
07:058	백마에 깃든 이야기	△	×	김:항	07:110	통통디 쭈이쵸	△	×	김:항
07:059	소가죽 한 장	△	×	김:조	08:055	문짜기	△	×	김:삼
07:060	손가락 권총	△	×	김:항	08:056	은망아지	△	×	연:연
					09:051	효자쌈물	△	×	윤:조

『김:조』는 김태갑이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조선족의 전설집이다. 구술자와 작가를 모두 밝힌 경우도 있으나 작가만 밝혀놓은 경우도 일부 있다. 『김:항』은 김태갑, 박창묵이 여러 작가들이 수집, 정리한 항일설화만 묶어놓은 설화집이다. 『김:항』의 경우 구술자는 밝히지 않고 작가만 밝혀 놓았다. 『길:백』, 『리:백』, 『김:삼』은 저자가 직접 수집, 정리한 개인의 작품집이다. 여기에 수록된 작품의 작가가 김재권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구술자에 대한 정보는 밝혀놓지 않았기 때문에 황구연인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이 유형의 작품들은 『전집』에 수록되었다는 것 외에는 구술자를 황구연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단서도 없다. 그렇다고 황구연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황구연의 이야기를 주로 수집했던 김재권의 작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은 많다고 할 수 있다.

(2) 김재권 ○의 작품

03:022	왕십리와 무학재	△	○	김:연	09:042	지혜있는 토끼와 호랑이	△	○	김:호
03:026	백미로 말을 미역 감겨 적을 물리친 권륜장군	△	○	김:연	09:043	뽀내던 두 호랑이	△	○	김:호
03:027	만파식적의 유래	△	○	김:연	09:044	호랑이와 꽃감	△	○	김:호
03:125	한글창제 일화	△	○	김:연	09:046	우쫄대던 호랑이	△	○	김:호
04:005	퇴계선생 일화	△	○	김:연	09:047	여우한테 먹히운 황소와 호랑이	△	○	김:호
04:010	아들 대신 개로 태어난 른개	△	○	김:연	09:048	호랑이와 게	△	○	김:호
04:011	통진쌀밥	△	○	김:연	09:049	방울에 혼쫄난 호랑이	△	○	김:호

04:012	명기 일타홍과 심일송	△	○	김:연
04:014	사후점	△	○	김:연
04:040	정금남의 일화	△	○	김:연
05:039	정승의 사위가 된 숫쟁이	△	○	김:연
05:040	차돌이 말을 했다	△	○	김:연
05:041	박참외	△	○	김:연
05:042	신로 심불로	△	○	김:연
05:043	두 선비의 내기	△	○	김:연
05:044	사또와 모령녀	△	○	김:연
05:045	세 가지 소원	△	○	김:연
05:046	출세미담	△	○	김:연
05:047	왕의 사위로 된 머슴군	△	○	김:연
05:048	정곡사 새벽 종소리	△	○	김:연
06:011	리춘풍전	△	○	김:호
06:034	천생연분	△	○	김:연
06:035	내 덕입니다!	△	○	김:연
06:036	부모의 버릇을 뎨 아들	△	○	김:연
06:037	소나기가 맺어준 인연	△	○	김:연
06:038	부채소녀	△	○	김:연
06:039	범서방의 외도	△	○	김:연
06:040	럼서방의 여경	△	○	김:연
07:020	한왕산에 깃든 이야기	△	○	김:연
07:066	지혜롭게 통신을 전하다	△	○	김:항

09:050	은혜 깊은 호랑이	△	○	김:호
09:052	효부와 호랑이	△	○	김:호
09:053	호랑이 형으로 된 삼들이	△	○	김:호
09:054	안거죽과 호랑이	△	○	김:호
09:055	효자와 호랑이	△	○	김:호
09:056	호랑이 담배피우던 이야기	△	○	김:호
09:058	호랑이와 니물보따리	△	○	김:호
09:059	호랑이를 쫓아낸 강감찬	△	○	김:호
09:083	할아버지에게 죽은 호랑이	△	○	김:호
09:084	최포수와 세 아들	△	○	김:호
09:085	뜻밖에 얻은 호랑이 가족	△	○	김:호
09:086	오성대감과 호랑이	△	○	김:호
09:087	호랑이를 싸움시켜 잡은 피동이	△	○	김:호
09:088	소년과 천년 묵은 호랑이	△	○	김:호
09:089	효자에게 죽은 호랑이	△	○	김:호
09:090	원님과 호랑이	△	○	김:호
09:091	모자와 호랑이	△	○	김:호
09:092	효성에 감동된 호랑이	△	○	김:호
10:134	숫처녀	△	○	김:연
10:135	한시를 털었어	△	○	김:연
10:136	빙빙 도는 집	△	○	김:연
10:137	그럼 주어서 씹어요	△	○	김:연
10:138	오늘 밤 시간이 있 느냐?	△	○	김:연

07:067	지혜롭게 경찰서를 습격	△	○	김:항
07:071	호박골	△	○	김:항
07:089	황금은 흑사심	△	○	김:연
09:029	고양이한테서 재간을 배운 호랑이	△	○	김:호
09:030	두꺼비와 토끼와 호랑이의 내기	△	○	김:호
09:031	사슴과 새끼범	△	○	김:호
09:032	호랑이와 반디벌레	△	○	김:호
09:033	사람과 호랑이	△	○	김:호
09:034	호랑이와 산고양이	△	○	김:호
09:035	피 많은 여우와 어리석은 호랑이	△	○	김:호
09:036	호랑이와 황소	△	○	김:호
09:037	호랑이와 토끼	△	○	김:호
09:038	함정에 빠진 호랑이	△	○	김:호
09:039	춤추는 호랑이	△	○	김:호
09:040	다람쥐한테 빌고 든 호랑이	△	○	김:호
09:041	불에 타 죽은 호랑이	△	○	김:호

10:139	첫날밤	△	○	김:연
10:140	거울	△	○	김:연
10:142	바보사위	△	○	김:연
10:143	모자라는 늑	△	○	김:연
10:144	왕서방	△	○	김:연
10:145	부부간의 상하 론쟁	△	○	김:연
10:146	망신살	△	○	김:연
10:147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	○	김:연
10:148	반값으로 깎다	△	○	김:연
10:149	개띠	△	○	김:연
10:150	효성	△	○	김:연
10:151	아들이나 딸이나?	△	○	김:연
10:152	하느님과 사기꾼	△	○	김:연
10:153	태교	△	○	김:연
10:158	참새와 포수	△	○	김:연

김재권이 수집, 정리한 것은 확실하지만 구술자가 분명하지 않은 작품들을 분류한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한 작품의 대부분은 『김:연』과 『김:호』에 수록되어 있다. 두 책 모두 김재권의 개인 작품집이지만 구술자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황구연이 구술한 이야기로 단정할 수 없다. 『김:연』의 <후기>에 “90년대에 신문, 잡지에 발표된 나의 설화 작품을 모아 묶은 것”이라는 내용과 『김:호』가 호랑이 이야기만 골라 묶은 설화집이라는 점에서 볼 때 모두 다양한 경로로 수집, 정리, 발표된 작품일 것으로 생각된다. 김재권이 남의 작품을 자신의 작품으로 바꾼 경우가 많기¹⁴⁾ 때문에 『김:연』과 『김:호』에도 황구연의

14) 김재권은 ‘백민성’이란 필명으로 『유서깊은 두만강만』, 『유서깊은 명동촌』, 『유서깊은 해란강만』, 『유서깊은 구수하만』(연변인민출판사, 2001) 등의 설화집을 시리즈로 간행한 바 있다. 이들 책에는 여러 작가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개별 작품의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구술 이야기가 아닌 작품이 상당수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3. 작가가 확실하지 않은 작품

황구연이 구술한 이야기는 맞지만 작가가 명확하지 않은 작품을 분류한 것이다. 김재권이 다른 작가와 공동으로 수집, 정리한 작품의 대부분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수집은 공동으로 하였을지라도 정리는 개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개별 작품을 정리한 작가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작이 되었다. 그런데 일부 작품의 경우 두 작가가 서로 자신의 작품이라 주장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1) 작가가 들인 작품

02:048	태원의 세 가지 보배	○	△	김:파 박:중	06:021	결교절의 유래15)	○	△	김:파 박:중
03:019	주원장과 리성계	○	△	김:파 박:중	06:022	망뽕귀인과 전인례	○	△	김:파 박:중
04:028	옥루몽에 깃든 이야기	○	△	김:파 박:중					

『김:파』는 김재권과 박창목이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를 공동으로 수집, 정리하여 간행한 설화집이다. 그런데 『김:파』에 수록되었던 위의 작품들은 『박:중』과16) 『전집』에 동시에 실려 있다. 『박:중』은 박창목이 대표적인 조선족설화를 모아놓은 설화집이다. 이로 인해 위의 다섯 작품은 동일 작품의 작가가 두 사람이 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두 작품집에 수록된 작품이 문장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원자료를 각자 정리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정리한 것을 각자 자신의 작품집에 수록한 것으로 봐야 한다. 구술자 황구연에 대한 연구 자료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김재권을 비롯한 작가

문제는 여기에 수록된 작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를 직접 수집, 정리한 것으로 변이시켜 『전집』에 수록했다는 점이다.

- 15) 『전집』과 『김:파』에는 <결교절의 유래>로 되어 있으나 『박:중』에는 <결교절>로 되어 있다.
- 16) 『박:중』에는 위의 작품들을 수집, 정리한 작가가 “연민”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책의 말미에 작가를 소개하면서 ‘연민’이 박창목 자신임을 밝혀 놓았다.

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보다 정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2) 김재권 △의 작품

02:010	구석편과 룡녀	○	△	김:파	05:024	사람집에 손님이 안 오면 집안이 망한다	○	△	김:파
02:050	지은보은	○	△	김:파	05:025	오신수와 오갈피에 깃든 이야기	○	△	김:파
02:051	손속오의 음덕	○	△	김:파	05:026	화공과 선비	○	△	김:파
02:053	한장 편지로 나라 기개를 떨치다	○	△	김:파	05:027	종의 의리	○	△	김:파
02:054	글 잘하는 소소매	○	△	김:파	05:028	명이가 된 돌파리의원	○	△	김:파
02:055	두목지의 일화	○	△	김:파	06:012	시골선비와 팔죽장사 할미	○	△	김:파
02:056	결초보은	○	△	김:파	06:013	금강산 신선이 된 나무군 총각	○	△	김:파
03:001	단군	○	△	김:파	06:014	10년뒤에 처가로 다시 가다	○	△	김:파
03:002	고주몽	○	△	김:파	06:015	효자와 감 세알	○	△	김:파
03:003	박혁거세	○	△	김:파	06:016	안장왕과 구슬아기	○	△	김:파
03:004	선덕여왕의 예언	○	△	김:파	06:018	제 색시를 찾자 장가들다	○	△	김:파
03:016	최치원의 이야기	○	△	김:파	06:019	설랑과 가실이	○	△	김:파
03:017	왕건	○	△	김:파	06:020	구렁덩딩 신선비	○	△	김:파
03:023	도미와 그의 안해	○	△	김:파	06:023	에밀레종	○	△	김:파
03:039	불가사리	○	△	김:파	06:024	그림 속의 미녀	○	△	김:파
04:002	역동선생	○	△	김:파	06:025	오위장이 된 시골선비	○	△	김:파
04:003	신사임당과 초충도	○	△	김:파	06:026	효자	○	△	김:파
04:004	화석정	○	△	김:파	06:028	시골선비와 반오	○	△	김:파
04:006	안해 덕에 정승되다	○	△	김:파	08:036	해와 달 ¹⁷⁾	○	△	김:파
04:007	룡을 잘하는 임금	○	△	김:파	08:037	호미난방	○	△	김:파
04:013	배은망덕	○	△	김:파	08:038	남산	○	△	김:파
04:023	술거와 로충도	○	△	김:파	08:039	귀돌이와 천문도사	○	△	김:파
05:015	절구통을 재판한 원님	○	△	김:파	08:072	금방망이	○	△	김:파
05:016	말 잘하는 리방의 실수	○	△	김:파	08:073	흑페러 갔다가 흑을 붙여왔다	○	△	김:파

05:017	산이 절구를 삼키고 물이 구슬을 토하다	○	△	김:과	08:074	왕의 귀는 당나귀귀 귀다	○	△	김:과
05:018	총명한 녀인	○	△	김:과	09:024	옥섬탄	○	△	김:과
05:019	두 선비	○	△	김:과	09:025	은혜깊은 뱀	○	△	김:과
05:020	머느리 글턱을 입다	○	△	김:과	09:026	효자와 금봉어치녀	○	△	김:과
05:021	말머느리	○	△	김:과	09:027	나무군총각과 말하는 남생이	○	△	김:과
05:022	보리밭만 지나도 취한다	○	△	김:과	09:028	궁냥 깊은 거부기	○	△	김:과
05:023	우는 애를 문 밖에 내놓지 않는다	○	△	김:과	09:071	호랑이치녀와 호원사	○	△	김:과

위는 『김:과』에 수록된 작품들 가운데 박창목이 자신의 설화집에 수록하지 않은 작품을 분류한 것이다. 박창목이 자신의 작품집에 수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작품을 김재권이 정리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박창목은 김재권처럼 많은 작품집을 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¹⁸⁾ 자신의 작품을 여러 문헌에 중복해서 수록한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김:과』에 수록되어 있는 82편 가운데 <한식의 유래>, <동의보감 침구편에 깃든 이야기>, <산정기를 타고난 황희>, <황의정승 일화>, <상삼문 이야기>, <숙종대왕의 일화>, <남씨부인의 원을 풀어준 박문수>, <마룡도상에서 일만대의 화살을 안기다>, <토끼와 거부기> 등 8편은 『전집』에 수록되지 않았다. 김재권이 자신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록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황구연이 구술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록하지 않았는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전집』에 황구연은 물론 김재권 자신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왕의 귀는 나귀귀다>, <결교적의 유래> 두 편은 『전집』에 수록되면서

17) 박창목의 <해와 달>(『산:하』)은 『전집』의 <해와 달>과 전반적인 전개는 같으나 세부 내용과 표기의 일부는 차이가 있다. 김재권이 박창목과 같이 수집했지만 두 작가가 독자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하면서 다른 작품이 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장까지 같은 작품이라면 동일 작가의 작품으로 봐야 하는데, 그럴 경우 김재권이 박창목의 작품을 자신의 작품으로 변이시켰을 가능성이 더 많다.

18) 박창목의 개인 설화집으로는 『바우돌과 현부인』, 『사랑산』 등이 있다.

<왕의 귀는 당나귀귀다>, <결교절>로 제목이 바뀌어 있다. 구비설화를 정리할 때 어떤 제목을 붙일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작가에게 달려 있다. 전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증거물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이지만, 민담의 경우 작가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전집』에 다른 작가의 작품을 수록할 때 제목을 달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목을 바꾼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4. 구술자와 작가가 확실하지 않은 작품

『전집』에 수록된 작품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일단은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를 김재권이 수집, 정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전집』에 두 사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작품들이 두 사람의 작품으로 바뀌어 수록된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작품의 경우도 그러한 예이다.

08:021	병풍 속의 호랑이	△	△	리:형	08:028	피동이	△	△	리:형
--------	-----------	---	---	-----	--------	-----	---	---	-----

위의 두 작품은 『리:형』에 수록된 작품과 내용은 물론 문장까지 같다. 『리:형』은 1992년에 간행된 설화집이고, 『전집』은 2007년부터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간행 시기로 보면 『전집』의 두 작품은 『리:형』에 수록된 두 작품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봐야 한다. 『리:형』에는 두 작품을 비롯한 어떤 작품에도 제본자를 비롯한 수집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리:형』의 두 작품이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를 김재권이 수집, 정리한 작품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이 김재권의 작품집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한 가능성은 많지 않다. 김재권의 작품이 아니라면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은 더 많다. 『리:형』은 “지능옛말”이란 표제가 붙어 있는데, 아동교육용 도서로 편집, 출판된 시리즈물의 하나이다.

3. 결 론

본고는 『전집』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작품이 정말로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를 김재권이 수집, 정리한 것일까 하는 의혹에서 출발하였다. 필자는 조선족 설화의 개별 작품을 논의하는 과정에 김재권은 물론 황구연과도 관련이 없는 몇몇 작품이 『전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료적 가치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집』에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구술자 황구연과 작가 김재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김재권이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를 처음으로 수집, 정리하여 간행한 『김:배』에 황구연이 아닌 다른 구술자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전집』에 수록된 947편을 이보다 먼저 발표된 작품과 비교해 보았다. 제목이 같거나 유사한 작품을 대상으로 내용과 문장을 비교하여 관련성과 영향관계를 고찰하였다. 조선족설화는 정리하는 과정에 작가의 개성과 역량 등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비록 같은 원자료라 하더라도 문장까지 같은 수는 없다. 조선족설화가 지니는 장르적 성격에서 볼 때 한 문장 이상 일치하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건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전집』에는 황구연이 구술한 이야기가 아닌 작품이 최소 72편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34편은 김재권이 수집, 정리한 것이지만 나머지 38편은 김재권과도 관련이 없는 작품이다. 김재권이 어떤 과정과 의도에서 이들 작품을 『전집』에 수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구술자 황구연은 물론 작가 김재권에 대한 연구에서도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전집』에는 구술자가 황구연인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작품이 117편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김재권이 수집, 정리하지 않은 작품이 27편, 김재권이 수집, 정리한 작품이 90편이다. 구술자가 황구연인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작품은 먼저 수록되었던 문헌에서 구술자를 밝히지 않은 경우이고, 작가가 김재권인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작품은 먼저 수록된 문헌에 다른 작가의 작품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이다. 구술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황구연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가 분명하다면 김재권이 자신의 작품집에서 밝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전집』에는 황구연이 구술한 것은 맞지만, 김재권이 수집, 정리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작품이 67편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작품의 대부분은 김재권과 박창목이 공동으로 간행한 『김:파』에 수록되었던 것이다. 두 작가가 공동으로 수집, 정리한 작품을 각자 개인의 작품집에 수록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67편 가운데 5편은 박창목의 작품집에도 수록되어 있다. 박창목이 5편만 자신의 작품집에 수록했다고 해서 나머지 작품의 작가가 모두 김재권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구술자와 작가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작품도 있다. 『전집』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를 김재권이 정리한 작품으로 봐야 하겠지만, 먼저 수록된 문헌에서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김재권이 이들 작품을 『전집』에 수록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집』에 황구연은 물론 김재권과도 관련이 없는 작품이 수록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작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전집』에 대한 연구에는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구술자 황구연에 대한 연구에서는 황구연이 구술하지 않은 작품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며, 작가 김재권에 대한 연구에서는 김재권이 수집, 정리하지 않은 작품은 제외시켜야 한다. 황구연이 구술한 것인지, 김재권이 수집, 정리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작품인 경우 연구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료선택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본고에서 ‘민간이야기대왕’으로 칭송되는 황구연의 구술 업적과 위상, 황구연 이야기뿐만 아니라 조선족의 구비설화를 가장 많이 수집, 정리한 김재권의 작가로서의 업적과 위상을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전집』에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 김재권이 정리하지 않은 작품이 몇 편 수록되어 있다고 해서 황구연이 조선족설화에 끼친 업적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갈:백』, 길 운, 『백일홍』, 연변인민출판사, 1979.
- 『감:두』, 백민성(김재권), 『유서깊은 두만강반』, 연변인민출판사, 2001.
- 『감:삼』, 김명환, 『삼태성』, 연변인민출판사, 1983.
- 『감:소』; 김재권 정리, 『소년부사』, 흑룡강성조선민족출판사, 1985.
- 『감:조』; 김태갑 편, 『조선족전설집』, 민족출판사, 1991.
- 『감:배』; 김재권, 『천생배필』, 연변인민출판사, 1986.
- 『감:연』; 김재권, 『천생연분』, 민족출판사, 1998.
- 『감:과』; 김재권 · 박창목, 『과경노』, 민족출판사, 1989.
- 『감:항』, 김태갑 · 박창목 편, 『항일전설설화집』, 연변인민출판사, 1992.
- 『감:호』; 김재권, 김권 편찬, 『호랑이옛말 50컬레』, 연변인민출판사, 1993.
- 『감:효』; 김재권 정리, 『효부중』, 민족출판사, 1992.
- 『리:백』, 리천록·최룡관, 『백두산전설』, 연변인민출판사, 1989.
- 『리:형』, 리윤수 책임편집, 『형제사이』,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2.
- 『림:팔』, 림승환·한광일·서종식 정리, 『팔선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7.
- 『민:③』; 중국 연변민간문예연구회 연변분회 편, 『민간문학자료집』 ③, 1982.
- 『민:(4)』; 중국민간문예연구회 연변분회(박창목, 김태갑, 김재권 수집) 편, 『민간문학자료집』(4), 1984.
- 『박:중』; 박창목, 『중국 조선족 구전설화』, 백송, 1996.
- 『선:하』;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 구비문학 하, 민족출판사, 1993.
- 『연:연』; 연변민간문학연구회, 『연변민간문학집』, 연변인민출판사, 1979.
- 『윤:조』; 윤영·조정현·최응범, 『조선민간전설』, 흑룡강성조선민족출판사, 1990.
- 『전집』, 김재권, 『황구연전집』, ①~⑩, 연변인민출판사(연길), 2007~2008.
- 『한:두』; 한정춘, 『두만강전설집』, 연변인민출판사, 1999.
- 『한:해』; 한정춘, 『해당화』, 연변인민출판사, 1995.

『황:금』; 황상박, 『금땅아지』, 연변인민출판사, 1990.
배영진, 『김덕순고사집』, 상해문예출판사, 1982.
임승환 · 한광일, 『팔선녀』, 흑룡강성민족출판사, 1987.

2. 논저

김동훈, 『중국 조선족 구전설화 연구』, 한국문화사, 1999.
우상열, 『중국 조선족설화의 종합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2.
임철호, 『조선족설화의 변이와 중국의 성격 고찰』, 『영남학』, 제13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임철호, 『조선족설화의 전승과 변이』, 『국어문학』 47집, 국어문학회, 2009.
임철호, 『조선족설화의 형성과 장르적 성격 고찰』, 『우리말글』, 제45집, 우리말글학회, 2009.
주송희, 『황구연구전설화연구』, 중국 연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최 향, 『황구연구전집 설화 연구 - 다중적 의식세계와 미적 지향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국문초록】

이 글은 『황구연전집』의 자료적 가치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황구연전집』은 조선족 민간이야기 대왕으로 칭송된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를 민간문학 작가 김재권이 수집, 정리하여 간행한 조선족설화집이다. 황구연과 김재권, 그리고 『황구연전집』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모두 이 책이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를 김재권이 수집, 정리했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황구연전집』에는 황구연이 구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재권이 수집, 정리하지도 않은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또한 황구연의 구술 이야기인지, 김재권이 수집, 정리한 작품인지 분명하지 않은 작품도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황구연전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이보다 먼저 발표된 작품과 비교한 결과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황구연전집』에 수록된 작품을대상으로 구술자 황구연과 작가 김재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경우 두 사람과 관련이 없는 작품들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구술자와 작가가 분명하지 않은 작품인 경우 연구의 성격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황구연, 김재권, 황구연전집, 조선족설화, 작품의 신뢰성, 무단전재

【Abstracts】

A Study on the materials of The Complete Works of Guyeon Hwang

Lim, Cheol-ho

This study is executed to verify the credibility of materials in *The Complete Works of Guyeon Hwang*. *The Complete Works of Guyeon Hwang* is a book of the folk tales of Chosunjok which Jaekwon Kim collected, arranged and published the stories which Guyeon Hwang created and spoke. As is well known, Guyeon Hwang is praised as the king of the folk tales of Chosunjok and Jaekwon is the great author of popular literature. Almost all the studies on Guyeon Hwang, Jaekwon Kim and the Complete Works of Guyeon Hwang wer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is book was made by Jaekwon Kim by collecting and organizing what Guyeon Hwang told.

Lots of the stories in *The Complete Works of Guyeon Hwang* were not told by Guyeon Hwang himself nor collected by Jaekwon Kim. Furthermore, lots of stories are not certain if they were told by Guyeon Hwang, and if they were collected by Jaekwon Kim. This study compared the stories in *The Complete Works of Guyeon Hwang* with the works published before the book was published, and classified the result.

When the researchers study *The Complete Works of Guyeon Hwang*, Guyeon Hwang and Jaekwon Kim, they should exclude the works which

were not related with the two persons. But some of domestic and Chinese papers have discussed Guyeon Hwang's life on the viewpoint of diaspora on the base of the works which were not related with Guyeon Hwang. This paper is undertaken with the hope to prevent such mistakes.

Key Words : Guyeon Hwang, Jaekwon Kim, *The Complete Works of Guyeon Hwang*, the folk tales of Chosunjok, credibility of the material, plagiarism.

이 논문은 2012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7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